

WINTER THEME

WE ARE THE ONE

정책 가이드

기술창업이민비자로 안정된 장밋빛 인생을 꿈꾸세요!

공존기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입니다" 김원숙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TOWN SKETCH

<mark>서울의 쁘띠 프랑스, 서래마을</mark> 낭만의 도시 파리를 닮은 곳, 빛으로 수놓다

외국인이 한국생활 중 느낀 점 '이럴 때 이방인 같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에서 외국인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문화차이'에서 벌어지는 간극을 극복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제2의 고향'이기도 하면서 여전히 낯선 '삶의 터전'인 한국 생활에서 사람과 사회 분위기에 대한 느낌을 물어봤는데요. 과연 어떤 대답들이 나왔을지 궁금하군요. 정리 편집실

한국 생활에서 외국인이 느끼는

어려움 BEST 5

한국에서 외국인이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생각되는 점은 어떤 것들일까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전문인력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무조건 일을 많이, 오래해야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언어, 배우자 취업, 자녀 교육, 식품 접근성, 기업문화가치, 평가 및 승진, 근무처 내 소통, 거주지 마련, 차별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동남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국에서보다 월급은 많이 받아도 살기가 쉽지 않다고도 밝혔는데요. 여전히 그들에게 '이방인'으로서 넘기 힘든 문화적 · 경제적 장벽이 있었군요. 진정한 공존을 위해 이해와 조화를 지닌 따뜻함으로 동등하게 대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40 — 상당히 어려움 매우 어려움 30 — 20 — 10 — 일과 삶의 균형 언어 기업문화가치 거주지 마련 식품 접근성 외국인들이 본 **한국인**의 장단점

여러분의 생각들은 어떠신가요?

성실하지만 여유가 부족하다

국제무역연구원이 조사한 '외국인들이 본 한국, 한국인 그리고 한국제품'이라는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의 장점은 근면 성실하다(21.5%)이고 단점은 여유가 없다(15.6%)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부지런함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그만큼 바쁘게 일하느라 심신의 여유가 없어 보였나 봅니다 그 뒤를 이어 친절함(16.7%)과 애국심(13.3%)을 장점으로 꼽았고. 자존심이 강하다(14.3%), 폐쇄적이다(12.3%) 등의 단점이 순위를 이었습니다.

근면 · 성실 여유가 없다 21.5% 15.6% 친절함 16.7%

친절함 16.4%

과잉경쟁 30.2%

친절하지만

외국인들이 본 한국사회의 장단점

경쟁이 치열하다

역동적이다 13.5%

그렇다면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앞서 한국인의 친절이 상위권이었듯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장점 역시 서비스 친절(16.4%)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단결심이 강하다(15.4%), 역동적이다(13.5%) 순이었고, 단점으로는 과잉 경쟁(30.2%), 한국적 우월성 강조(27.5%), 너무 빠른 리듬(20.2%)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유롭고 느긋한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과도한 경쟁문화와 '빨리빨리' 돌아가는 모양새는 익숙하지 않은가 봅니다. 낯선 나라에서 문화와 언어적 차이를 겪는 외국인들에게 조금만 '천천히(Slowly)', 한국인의 강점인 '친절함(Kindly)'으로 대해주면 훨씬 여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2

하나되는 모습으로 모두가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Let's create an atmosphere where everyone can stay warm by uniting and binding together.

공존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여는 신년에 대한 기대와 의욕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금년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에 걸맞게 재정착난민 수용,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간소화 등 따뜻한 외국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새해에도, 국민과 외국인이 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존인 여러분, 혹한의 추위를 겪더라도 마음만은 따뜻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Greetings to all readers!

Eventful and bumpy 2016 nears an end and now we are preparing to ring in 2017, the year of the Fire Rooster.

Around this time of the year, we usually regret of not sticking to our new year's resolutions we made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n the other hand, expectations grow as we usher in the new year filled with hope.

Recently,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living in Korea reached 2 million.

In a timely and appropriate manner,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has implemented immigration policies favorable to foreigners including resettlement of refugees and simplification of notification process of change in the foreigners' place of sojourn in 2016.

We will step up efforts to create an environment which promotes harmonization among Korean citizens and foreigners in 2017.

Dear readers, I hope you will keep warm hearts on bitter cold days and welcome a new year with happiness and peace.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to everyone!

행운과 평안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Commissioner,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Kim Woo-hyeon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프랑스의 로맨틱한 분위기가 흐르는 서래마을. 오밀조밀 모여있는 프랑스풍 선사하고, 몽마르뜨 공원에 사는 토끼들은 이상한 더 동화 같은 서울의 프랑스 마을을 둘러보자.



공항과 항만, 체류외국인 관리사무소가 함께 있는 전국 유일의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전세계인이 찾는

앱북에서도 만나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업데이트 됩니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Soci 사회통합정보망 Net www.socinet.g www.socinet.go.kr

계간 〈공존〉 2016 겨울호 통권 제44호 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발행일 2016년 12월 | 발행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Tel 02-2110-4019 |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기획 및 디자인 (주)더쎄븐파트너스 Tel 02-2038-7700 | 인쇄 문덕인쇄 Tel 02-462-8980 본지에 실린 외부필자의 원고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고, 사진 사용 책임은 (주)더쎄븐파트너스에 있습니다. CONTENTS

외국인이 한국생활 중 느낀 점 '이럴 때 이방인 같다'

"이민대개방,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김원숙 IOM 이민정책부원장

08 떡볶이와 펜네 파스타 간편하게 즐겨먹는 만인의 간식 매콤달콤 떡볶이와 짜리몽땅 펜네 파스타

10 TOWN SKETCH '서쪽 물가의 작은 동네' 에서 '글로벌 빌리지'로

"한국을 세계로 쏩니다" 한국 알리기를 자처한 마리 프레넷과 코리 메이 부부

기술창업이민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세요

혼저옵서예! 청정 제주를 닮은 정갈한 서비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이해와 오해 사이 〈떡보와 사신〉

Nice의 반대말, '까칠하다'

새해 운세를 말해줘! 세계 각국의 다양한 행운점

'분단'이라는 공감대로 하나 된 두 나라 한국과 독일

뜨끈한 아랫목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

40 출입국 Q&A 출국심사인 날인 생략으로 출입국 절차를 간소하게!

42 LIVING IN KOREA 제6회 한마음걷기축제

46 2016 ISSUE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올해의 발자취

50 앱북 이벤트 광고 〈공존〉 만족도 조사 응모해 주세요

홀란이 추천하는 남양주 몽골문화체험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 '인구'는 한 국가의 성패를 좌우

최근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약 4%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해 이제는 평범한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외국인이 자연스 럽게 융화하는 환경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7년 체류외국인 이 100만 명에 이른지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아 2016년 현재 2배나 증가한 것으로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향후 5년 내에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3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김원숙 부원장은 예측했다.

"현재 OECD 주요 국가의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을 보면 프랑스와 캐나다가 각각 6%, 영국 8%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러한 다문화국가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유입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방지하고 국민과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아갈수 있는 성숙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민 정책적 수요가 대폭 증가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을반영한 종합적 관점의 이민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민자와 내국인의 상생 그리고 국가 발전 및 국제사회에 기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한국이 이민대개방을 실시하면 얻게 되는 장점은 무엇일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현실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력 저하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민자들이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국가경제성장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이민 수용론자인 권오규 전 경제부 총리도 OECD 평균 외국인 비율에 맞춰 600만 명까지 확보하면 12년 후인 2030년 소 득 8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2~30년 후 세계는 훨씬 개방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에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 '인구(Population)'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 임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외국인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도 증가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우리보다 앞서 이민자 를 받아들이고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반이 민 정서가 고조됐던 예를 보면서 한국도 유사한 발생에 대한 대비를 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문화사회로 인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불법 이 민자로 인한 외국인 범죄 증대, 외국인과 결혼으로 출생한 자녀교육 문제, 외국인 복지 및 참정권 문제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체 계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청을 설립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할 것입니다."

이주민은 우리 사회 동등한 구성원, 인식 바뀌어야 진정한 사회통합 이룩

현재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행정시스템이 내국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볼 때 불편한 사항이 많다. 이민대개방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 이제는 외국인을 사회구성 원으로 염두에 두고 이에 맞춰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절차 등에서 외국인 등록번호가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

"이주민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외국인 정책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체류자들의 정착을 돕고 사회갈등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2009년 개원이래 이민문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민법행정,이민경제, 사회통합 및 이민협력,이민동향분석,인권난민 등의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이민대개방이 실시되면이러한 연구는 더욱활발해 질 것입니다. 특히 정부부처에서도이민 관련 연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여러 정부기관이 협력해 국가 정책 개발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민대개방은 이민자 규모 증가보다 우수인재 중심의 이민자 도입 정책이 중요하다고 김원숙 부원장은 강조한다.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이민자들이 한국이 갖추지 못한 기술력을 국내에서 펼치고 우리나라 고유한 역량과 결합할 때 크리에이티브한 시너지를 불러 일으켜국가 경제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대개방에 앞서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고, 종합적인 외국인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주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법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데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김원숙 부원장은 약속했다.

Tteokbokki

떡볶이



온 국민의 주전부리, 매콤달콤 떡볶이

8

새빨간 고추장으로 맛깔스러운 빛을 내는 떡볶이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까지 좋아하는 한국의 대표 간식이다. 침샘을 지극하는 알싸한 매운맛과 어우러지는 달콤함으로 외국인들에게도 인기만점! 현재 떡볶이는 서민을 대표하는 음식이지만 원래 궁중 음식이었다. 〈시의전서〉에는 궁중에서 흰떡과 등심살, 참기름, 간장, 파, 석이버섯, 잣, 깨소금 등으로 만들어 먹었고 떡볶이라는 이름 대신 떡찜, 떡잡채, 떡전골 등으로 불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1942년 방신영의 〈조선요리제법〉에 떡볶이라는 이름과 조리법이 정식으로 소개되었으며 고추장을 넣어 매콤하게 만든 떡볶이는 1950년대에 나타나 197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떡볶이 골목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도 70년대부터다. 현재 떡볶이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고추장 소스에서 벗어나 크림, 짜장, 해물, 카레 등 다양한 소스들과 접목되었고, 브랜드화를 거쳐 전문적인 외식업체로 발전했다. 떡볶이의 무한 변신 시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건 이제 시간문제다.

필수 재료 '떡'에도 종류가 있다?



한국의 전통음식 '떡'은 흰쌀 혹은 찹쌀을 이용해 만든다. 당연히 음식의 이름처럼 떡볶이에는 '떡'이 주요 재료. 그런데 어려웠던 시절, 상인들이 비싼 쌀떡 대신에 밀가루로 만든 떡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저렴한 값에 팔면서 서민들은 맛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떡볶이를 즐겨 찾게 되었다. 지금은 취향에 맞게 쌀떡이나 밀가루떡을 선택한다. 밀가루떡은 쌀떡과는 다른 쫄깃한 식감과 양념이 떡속까지 잘 배어들고, 쌀떡은 시간이 지나도 불지 않아 오래 끓여도 고유의 탄성을 유지한다. 재료의 특징을 잘 파억해 각자의 개성에 맞는 DIY 떡볶이를 만들어보자.

Penne Pasta

펜네 파스타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한 파스타의 세계! 짜리몽땅 펜네 파스타

세계인에게 사랑 받는 이탈리아 음식은 두말 할 것 없이 파스타다. 파스타는 원래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면을 지 칭하는 단어다. 기원전부터 먹기 시작한 파스타는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19세기 정착한 이탈리아 이 민자들에 의해 여러 나라에 알려졌다. 파스타의 종류는 600개 이상에 달하고 길이에 따라 롱 파스타와 쇼트 파스타로 나뉘는데, 펜네는 쇼트 파스타의 일종이다. 실린더처럼 원통형으로 만들어진 파스타로 면의 양쪽 끝이 사선으로 잘라져 있는 모양이 깃털이나 깃펜을 닮았다 하여 이를 뜻하는 라틴어 'penna'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파스타는 면의 종류와 소스를 입맛에 맞게 요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잘 맞는 궁합은 따로 있다. 펜네의 경우토마토 소스나 페스토 같은 걸쭉한 소스와 함께 조리하는 것이 제격이다. 대표적으로 '펜네 알 아라비아타'에 펜네가 쓰인다. 파스타에는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미국인들은 펜네만은 '펜네 파스타'라고 부른다고 한다. 수천 가지요리가 나올 수 있는 파스타, 오늘 저녁 가족 혹은 친구만을 위한 파스타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파스타'가 건강에 좋다고?



흔히 '파스타'는 맛있지만 칼로리가 높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탄수화물 덩어리에 고기와 치즈가 얹어지기 때문. 하지만 파스타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다. 더데일리밀(thedailymeal)에 따르면 한 컵의 스파게티에는 8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 파스타에 있는 몇 가지 아미노산들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파스타는 식물성 재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구의 건강에도 좋다. 육고기와 달리 비교적 작은 면적의 땅과 에너지, 물이면 충분히 친환경적으로 수확이 가능하다. 소스 선택만 잘 한다면 파스타도 충분히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서울의 작은 프랑스, 서래마을

'서쪽 물가의 작은 동네'에서 '글로벌 빌리지'로

글 **손미경** 사진 **이영균**

서래마을이 된 서애마을

지명(地名) 뒤에 '마을'이 붙었으니 예스러운 풍경부터 떠오르겠으나 서래마을은 매우 현대적이고 이국적인 글로벌 빌리지다. 유래에 의하면 '서쪽 물가에 있는 동네'라 하여 서애(西涯)로 불리다 음운변동을 일으켜 '서래'로 불리었다는데, 발음 시 '애'와 '래'의 묘한 차이가 예스러운 마을에서 글로벌 빌리지로 거듭나게 한 것은 아닐는 지. '애'에서 '래'로 변화되는 순간 어감의 울림이 확장성을 띠기 때문이다.

그러한 짐작을 가능케 하는 서래마을은 서초구 방배본동과 방배4동, 반포4동 일대에 걸쳐 있다. 물가에 위치한데다 지대까지 낮아 매년 홍수 때마다 물난리의 고초를 겪었으나 1974년 용산구 한남동에서 개교식을 가졌던 서울프랑스학교가 1985년 서래마을로 이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낮은 지대가 높은 지대로, 담장 낮은 집들이 담장 높은 집으로, 오래된 가게들이 이국적 분위기의 새로운 가게로, 한국인 위주의 거주지에서 프랑스인 위주의 거주지로 변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프랑스인 1904명 중 518명이 서래마을에 살고 있고, 이곳에 프랑스풍 카페, 레스토랑, 베이커리, 와인바 등이 들어서며 지역민들의 산책로인 반포배수지공원이 몽마르뜨공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주민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 안내판과 상가 간판에 프랑스어가 표기되면서 '서울의 작은 프랑스'라는 애칭도 생겨났다.

낭만의 카페 거리 그리고 그들만의 주거지

서래마을은 낭만의 카페 거리와 그들만의 주거지, 이 두 가지 조합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경계가 확연하다. 530m의 카페 거리는 다소 붐비고 개방적이지만, 카페 거리를 중심으로 한 좌우 골목의 집들과 방배중학교를 중심으로 일렬로 지어진 빌라들은 고즈넉할 정도로 조용하고 담장이 높아 철저하게 분리된 느낌을 준다. 서래 마을의 이와 같은 조합은 마치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같다.

서래마을 초입부터 방배중학교까지 약간의 오르막을 따라 이어지는 카페 거리에도 '서울의 작은 프랑스'처럼 애칭이 있다. 바로 '낭만의' 카페 거리다. 대부분 낮은 건물에 들어선 프랑스풍 카페, 레스토랑, 베이커리, 와인바 등이 오밀조밀 아기자기 밀집되어 있고, 봄바람이 불 때부터 가을바람이 불 때까지 꽃으로 장식한 발코니에 앉아 밥과 차를 즐기며,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프랑스인들이 예술가처럼 보일 때 누구나 떠올려지는 단어가 '낭만'이다.

그 '낭만'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사람들은 카페 거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매우 여유로워진다. 빨랐던 걸음이 느려지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던 시선이 사방 둘레로 분산되며, 고단한 일상이 쉼 혹은 휴식으로 바뀐다. 이처







럼 이성이 강요되는 현실에서 감성이 돋아나는 카페 거리를 즐겨 찾는 사람들은 '서울의 작은 프랑스'에 오면 마치 '지중해와 대서양에 위치한 진짜 프랑스'에 와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서래마을이 프랑스인들의 주 거주지가 되면서 '서울의 작은 프랑스'로 불리기 이전의 풍경을 기억하는 오래된 주민들은 거의 없다. 고급 주택과 빌라가 들어서면서 서민층에 속했던 대부분의 주민들이 형편에 맞는 곳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서래마을이 평범한 동네에서 '부촌'으로 거듭나자 사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인 거주자들도 부쩍 늘었다. 이름 석자만 대면 누구나 아는 국내 유명인들과 기업인들이 하나 둘 몰려들면서 서래마을의 담장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서래마을이 '그들만의 주 거지'로 불리는 이유다.

외국인을 위한 주민센터인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가 세워지면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도 서래마을을 주거지로 삼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인을 비롯한 외국인 대부분의 직장이 서래마을 안에 있지 않고 인접한 곳에 두고 있어 낮의 거주지 풍경 속에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니 서래마을에 가면 으레 멋진 이방인들로 붐빌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 마시라. 여름과 겨울 긴 휴가를 떠나는 기간에는 여기가 '서울의 작은 프랑스'인가 싶을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이국적인 분위기는 그대로라 약간의 아쉬움만 있을뿐이다.

빛으로 물든 서래마을의 겨울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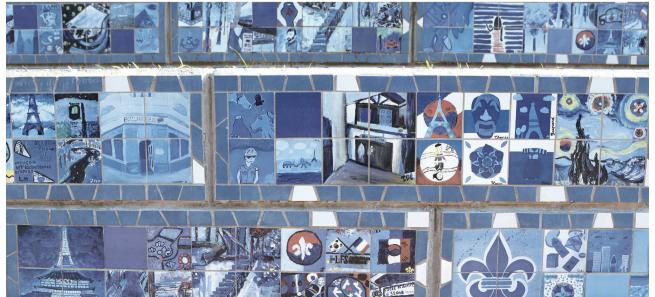
프랑스가 낮보다 밤이 더 선명하고 아름답듯이 서래마을도 그러하다. 조명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하는 서래마을의 어스름한 저녁은 따뜻해 보이고, 조명이 일제히 켜진 서 래마을의 밤은 은은하여 더욱 매혹적으로 보인다. 마치 모든 조명이 조도를 맞춘 듯 그 밝기가 더 하거나 덜 하지 않고 균형의 조합을 이룬다.

은은한 조명으로 찾아오는 서래마을의 밤은 집과 집 사이의 가로등과 몽마르뜨 언덕









에도 사뿐히 내려앉는다. 배수지였던 곳을 산책로와 쉼터로 바꾸면서 낭만적인 이름을 얻게 된 몽마르뜨공원에 오르면 서래마을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나뭇가지들이 잎을 떨군 덕에 봄과 가을에 볼 수 없었던 아련한 풍경까지 마주할 수가 있다.

그런데 12월이 되면서 서래마을의 밤이 선명하고 화려해졌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530m 카페 거리에 동화 '어린 왕자'를 주제로 한 '빛터널'이 조성된 것이다. 1차선 도로 양쪽에 심어진 가로수 은행나무에 5만여 개의 LED 조명을 장식하고 어린 왕자, 눈꽃, 별 등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한 달 내내 불을 밝혔다. 거기에 1차선 도로를 오가는 자동차 불빛까지 더해지면 서래마을의 겨울밤은 내내 빛으로 물들었다가 아침을 맞는다. 그리고 한 달 내내 반복되던 그와 같은 아침이 지나고 나면 서래마을은 이내 겨울빛을 걷어내고 봄빛으로 물들 것이다.

"여기도 둘러보세요!"

파리15구 공원 수령 334년의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어 '은행나무 공원'으로 불렸으나 올해 7월 한 · 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며 '파리15구 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리고 그 기념으로 은행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3단 계단에 그림, 시, 캘리그래피 등이 그려진 총 1620개의 타일을 붙여 벽화로 재탄생시켰다. 타일 벽화의 이름은 '우정의 벽'. 서울프랑스학교 학생 320명과 지역주민 등 448명이 참여해 타일을 일일이 벽에 붙여 만든 벽화는 전면에서 볼 때 프랑스 국기를 연상시킨다. 매년 12월에는 이곳에서 매년 크리스마스 행사인 '프랑스 전통장터'가 열리는데 올해로 14년째를 맞았다. 서래마을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이 집에서 직접 만든 전통 음식과 빵, 치즈, 와인, 초콜릿, 수공예품 등을 들고 나와 판매한다.

| 서울프랑스학교(Lycée français de Séoul, LFS) 서울프랑스학교는 서 래마을 카페 거리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학교 바로 앞에 'Attention ecole(학교 앞주의)'라는 도로 표지판이 있으나 일반 건물과 딱히 차별화되지 않아 누가 일부러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다. 학생 중 약 60%가 프랑스인이고, 약 40%가 한국인과 외국인이다. 유치원 3년, 초등학교 5년, 중등 4년, 고등 3년 총 15년 과정이며 프랑스 현지와 마찬가지로 9월 신학년도가 시작되고 다음해 6월 학사 일정이끝난다. 대부분의 수업은 대화로 진행되며, 정규 커리큘럼 외에 외부 활동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의 현지 생활을 위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많이 주고 있으며, 중학교 2학년부터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운다.

| **몽마르뜨 언덕** 가볍게 산책하기에 딱 좋은 몽마르뜨공원에는 두 개의 명물이 있다. 몽마르뜨 언덕이라 불리는 정상에 놓인 누에다리와 잔디마당의 토끼들이다. 누에처럼 생긴 누에다리는 여러 빛깔로 바뀌는 조명을 설치했는데, 그 빛깔이 꽤

분위기가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유명하다. 누에다리는 국립중앙도서관 옆 사이길 계단과도 연결되어 있다. 잔디마당에서 사는 토끼들은 몽마르뜨공원을 오가는 사람들과 익숙하여 절대 피하는 법이 없다. 바로 앞에서 눈을 맞춰도 시크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방배사이길 원래 거리 이름은 '방배42길'. 그러나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공방 거리를 형성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자는 뜻을 담아 '방배사이길'로 부르기 시작했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마다 '사이데이마켓'을 열고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소통 중이다. 소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아틀리에, 갤러리, 공방 등이 서로 이웃하며 작업과 판매를 겸하고 있는데 현재 30여 개에 이른다. 카페 거리와 떨어져 있는 까닭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꼭 한번 가보길 권한다. (내방역 7번 출구에서는 함지박사거리 방향으로 도보 10분, 카페 거리 방배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12번 버스를 타고 함지박사거리에서 하차)

정통 프랑스 베이커리와 셰프의 레스토랑

| 파리크라상(Paris Croissant) 서래마을에 가장 먼저 생긴 프랑스 정통 베이커리. 초창기에는 프랑스인 파티셰가 상주하며 빵을 만들었으나 한국인 파티셰에 게 제빵 기술을 전해준 뒤 자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대략 아침 7시와 오후 5시쯤 바로 구운 빵을 살 수가 있는데, 이 때 가장 많은 프랑스인들을 볼 수가 있다.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재료만을 사용하며 바게트, 뺑드뮬, 깜빠뉴, 루스틱 등의 기본적인 빵을 비롯해 눈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모양의 케이크들이 항시 진열되어 있다.

곤트란 쉐리에(Contran Cherrier) 문을 연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파리크라상과 경쟁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파리크라상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재료로만을 사용한다. 베이커리 이름과 같은 파리 본사의 파티셰 곤트란 쉐리에가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의 파티셰가 프랑스를 방문하며 새로운 정통 프랑스식 빵들을 선보이고 있다.

출라이(July) 유리를 통해 보이는 달 항아리 조명이 이색적이다. 중후한 느낌의 클래식한 인테리어와 입구부터 친절한 직원들이 세심하게 안내를 한다. 때문에 편안한 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특별한 날 특별한 대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상의 레스토랑이다. 미슐랭가이드에 '정통 프랑스식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국내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셰프의 개성대로 전통을 재해석한 노력이 돋보인다'고 소개되기도 했던 줄라이의 인기 메뉴는 양갈비 스테이크다.





| 르지우(Le Jiu) 외부에서 내부 풍경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그 때문에 비교적 친근한 느낌을 준다. 봄에는 꽃으로 예쁘게 꾸민 테라스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싶은 이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다. 최근에는 tvN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의 촬영지이자 정호균 셰프가 드라마 주인공인 조정석의 푸드 디렉터를 맡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2백여 종류의 와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기 메뉴는 드라마에서 선보인 아보카도로 색과 맛을 낸 슈렉 파스타다.

법킨 플리즈(Napkin Please) 가수 크라운 제이와 서인영이 얼마 전 JTBC 〈인생메뉴, 잘 먹겠습니다〉에 소개하면서 유명해진 곳이다. 친절하되 부담스럽지 않은 안내와 시끄럽지 않되 적당히 수다를 떨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한다. 때문에 서래마을 젊은이들이 주로 즐겨 찾으며, 혀에 착착 감길 정도로 맛이 있으나 다소 느끼한 편이어서 콜라 같은 청량음료를 곁들이는 것이 좋다. 인기 메뉴는 다양한 종류의 샌드위치와 바삭 구운 통 베이컨 위에 달콤한 메이플 시럽을 올린 캐네디언 베이 컨이다.





유럽연합 국가 중 한국의 제5위 교역국, 제4위 투자국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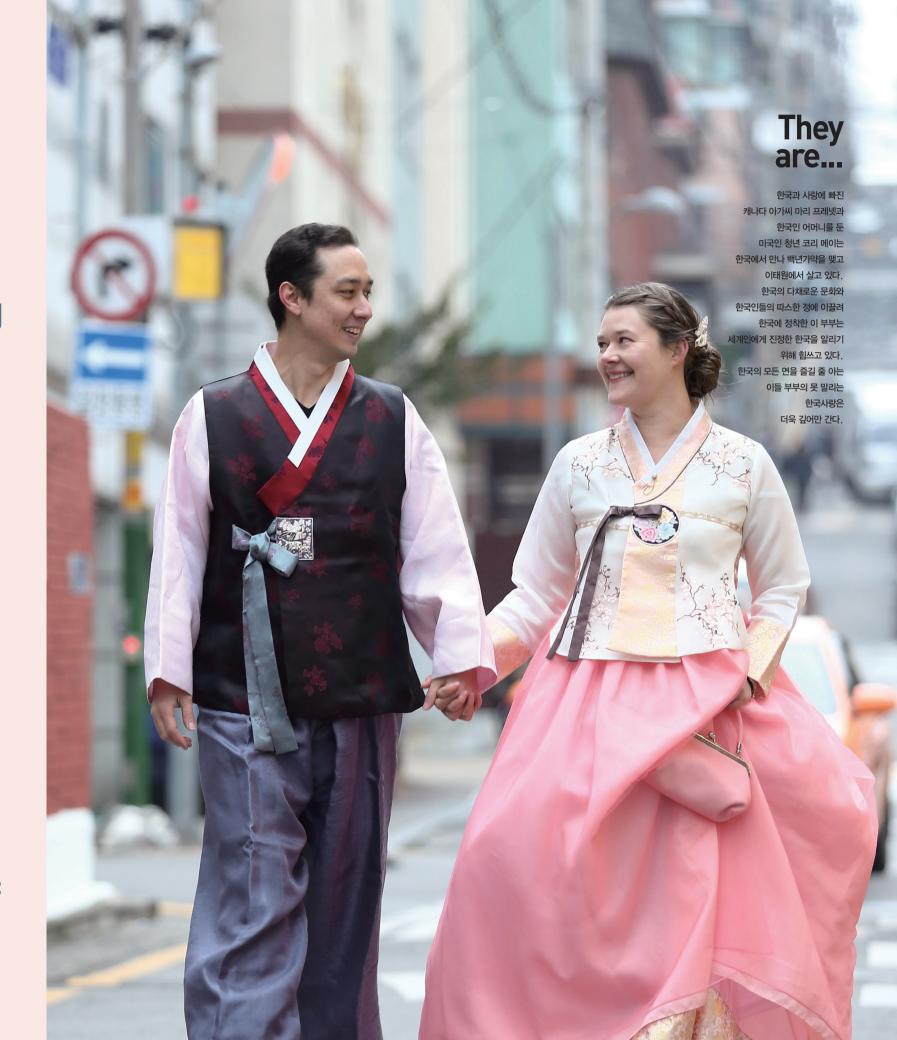
조선으로 불리던 이 땅에 최초로 발을 디딘 프랑스인은 피에르 필리베르 모방(Pierre Philibert Maubant) 신부였다. 1836년 1월 육로를 통해 조선을 찾은 그는 최조의 프랑스인이자 서양인이었다. 그리고 1886년 6월 4일 조선의 전권대신 김만식과 프랑스의 전권대신 코고르당(F.G. Cogordan)이 조 \cdot 불 수호통상조약을 체결, 조선과 프랑스 간에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1905년 한국과 프랑스 간 외교관계가 중단되었음에도 상해 임시정부가 프랑스 조계에서 활동할 당시 프랑스의 비호까지 받았으니 우리에게는 당연 고마운 나라일 수밖에 없다. 또한 1949년 2월 15일 양국 간 국교가 재개되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구축함 1척, 지원부대 1대대, 연인원 3,421명을 파병했다. 프랑스의 파병 병력 중 장교와 하시관을 포함해 269명이 전사하고, 1,357명이 부상을 당했음에도 1958년 10월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의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키기로 합의하고, 1959년 양국 초대 대사를 임명했다. 이후 우호적인 수교를 지속해서 이어 온 한



국과 프랑스는 한 · 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2015년과 2016년을 한 · 불 상호 교류의 해로 정하고, 다양하고 풍성한 기념 축제를 열었다. 한국 고유의 전통과 예술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종묘제례악'를 비롯한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를 프랑스에 알리고, 양국 예술가들의 교류를 통한 공동 창작과 협업이 이루어졌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와 한국의 역사를 증언하는 귀한 자료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특별전시회도 열렸다. 그 중에는 김구 주석이 드골 장군에게 보낸 대독승전 축하전문과 드골장군이 김구 주석에게 보낸 답장, 양국의 오랜 친분을 보여주는 빛바랜 사진들이 있었는데 관람객들의 기슴을 뭉클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We are a Canadian Marie Frenette and a Korean-American Corey May who married in last August. We fell in love with each other in Korea through the medium of Korea. Currently, we are operating 'koreacurated.com' which is about sending boxes containing Korean-style goods to foreigners who want to know about Korea. These boxes show Korean culture that cannot be easily experienced in foreign countries as they contain products of small/medium companies or indie artists. Through YouTube, it also shows diverse looks of Korea such as tourist destination, food, and back alley. Korea has become the second home to us. We like to work harder to introduce the charms of Korea to people in the world. We truly love Korea.



"한국을 세계로 쏩니다"

한국 알리기를 자처한 마리 프레넷(Marie Frenette) & 코리 메이(Cory May) 부부

글 **김경주** 사진 **이영균** 의상협찬 **마리한복**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리 프레넷(Marie Frenette), 코리 메이(Cory May)부부입니다. 한국에서 만나 올해 8월 결혼했어요. '한국 마니아'인 저희 부부는 현재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일 (Koreacurated.com)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게 된 계기는요?

마리 저는 꼭 한번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살 아보고 싶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만 난 여성을 통해 한국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부산과 제주를 추천 받았는데 어감이 좋았던 '제주'로 왔죠. (웃음) 1년만 살아보려 했는데 벌써 10년째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네요. 코리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미국 해군이 셨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 났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에 지속적으로 방 문했지만 주로 미국과 일본에서 살았는데 어 머니의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어서 4년 전에 한국에 오게 되었죠.

두 분의 러브스토리가 궁금해요.

마리 둘 다 유기견 보호에 관심이 많아요. 우연히 같은 유기견 후원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는 코리의 사진을 보고 제가 먼저 남편에게 연락했죠.(웃음) 다행히 서로 마음이 통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한국은 저에게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해준 특별한 곳이에요.

결혼식은 어디서 했나요?

마리 당연히 한국에서 했죠! 하지만 한국식 결혼은 하기 싫었어요. 양쪽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대해 환경운동연합의 뒷마당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이 끝난 후 서촌의 가정집을 1주일 간 빌려서 다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두 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코리 일본에 살았을 때 일본의 아기자기한 뒷 골목을 참 좋아했어요. 한국은 일본과는 다 른 매력의 뒷골목과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로



저를 사로잡았어요.

마리 처음 제주에서 살았을 때, 한국 친구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아플 때는 같이 병원도 가주고 항상 챙겨주고요. 먼저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인지 나중에 '정(情)'이란 단어를 듣고 그 의미를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게 정이구나!' 한국인들은 정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코리이큐레이티드닷컴'은 어떤 일을 하나요?

마리 올해 초부터 저희가 직접 선정한 한 국적인 상품들을 모아서 '디스커버리 박스 (Discovery Box)'에 담아 해외에 있는 한국 마니아들에게 배송하고 있어요. 진짜 한국 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박스에 넣 어 보내는 물건들은 중소기업이나 인디 아티 스트들의 제품들로 구성하고 있어요. 외국에 서 접할 수 있는 한국문화는 대부분 드라마. 영화. K-POP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 런데 정말 한국에 푹 빠진 외국인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대중문화보다 한국에서도 숨어있 는 마이너 문화까지 알고 싶어해요. '디스커 버리 박스'를 통해 해외에 살고 있는 외국인 들은 더욱 가깝게 한국을 느낄 수 있고. 한국 의 작은 기업과 인디 아티스트들은 해외로 자 신을 홍보할 수 있죠. 저희는 이들을 연결시 키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적인 상품들은 어디서 찾나요?

마리 SNS와 서울시 시민청 다누리샵을 많이 이용해요. 둘 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여행을 하다가 맘에 드는 상품을 발견하기도 하죠. 친한 친구들의 추천을 받기도 해요. 특히정은이란 친구는 저의 베스트 프렌드인데요,항상 특이한 물건이나 브랜드를 발견하면 수시로 알려주죠.(웃음) 정은아. 고마워!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코리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마리와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마리도 제 영상에 참여하게 되었죠. 이제는 채널의 이름을 '코리 앤 마리(Cory & Marie)'로 바꾸고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여주고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더욱 꾸준히 영상을 올려서더 많은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고 싶어요.

한국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코리 한국인 어머니와 살았지만 한국의 명절이나 제사 같은 전통문화를 제대로 경험할 기회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외할머니를 비롯한 친척들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제가 한국에 온 뒤로는 외국에 있는 부모님과 한국 식구들을 영상통화로 연결해서 제사 때는 같이 절도 해요.

마리 씨는 고향이 그립진 않나요?

마리 고향이 그리워 캐나다에 돌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한국 생각만 나고 한국사람의 뒷모습만 보고도 한국 사람인걸 알아챘죠.(웃음) 한국기업의 캐나다 지사에서 일하려고 했지만 한국에 자주 갈 수 없다는 말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이 항상 그립긴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과 캐나다를 자주 왕래하고 싶네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주 방문하시나요?

마리 외국인이니까 안 갈 수 없는 곳이죠.(옷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들어갈 때는 떨리고 긴장돼요. 그런데 막상 일을 마치고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편해져서 나와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거든요. 코리는 한국에가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비자가 나왔지만 저 는 창업이 가능한 비자를 받는 과정이 꽤 길었어요. 마침내 비자를 받았을 때, 저의 오랜 한국 짝사랑이 끝나는 느낌이었죠.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의 계획과 꿈이 궁금합니다.

마리&코리 우선 코리아큐레이티드닷컴을 지금보다 크게 키우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알리려고 해요. 또 하나의 꿈은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지면 캠핑카를 빌려서 한국의 곳곳을 여행하는 모습을 구독자들에게 라이브로 방송하는 거에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2의 고향인 한국에서 꿈을 펼칠 우리 부부를 응원해 주세요!

Her choice

Marie Frenette 씨가 추천하는 아름다운 경치의 향연.

케이프브레턴 하이랜드 국립공원

Cape Breton Highlands National Park



케이프브레턴 하이랜드 국립공원은 캐나다 노바스코사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에서 제일 큰 자연보호 지역이자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원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캐벗 트레일(Cabot Trail)이 해안을 따라 지나가고 있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해안 하이킹로를 걷다 보면 고래를 자주 볼 수 있고, 해안도로 주변에는 잠시 쉬어 가거나 소풍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의 청정 자연을 느껴보고 싶다면 케이프브레턴 하이랜드 국립공원으로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우수기술보유 외국인에게 희소식!

기술창업이민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세요

Good news to foreigners with extraordinary skills!

Start a new chapter of your life in Korea by taking advantage of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OASIS).

한국에서 생활하는 재한 외국인 중 자신의 숙련된 기술을 통해 창업을 하여 장밋빛 안정된 미래를 꿈꾸는 외국인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창업비자를 발급해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제공을, 국내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반가운 기술창업이민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한국 이민대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기술창업이민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There must be a number of foreign residents living in Korea with superior skills visualizing rosy and stable futures by settling down in Korea. Through the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OASIS), foreigners meeting necessary requirements can obtain Start-up visas. It provides them with opportunities to live and work in Korea and contributes to Korea by reinvigorating economy and creating jobs. The Korean government is about to take in a large number of immigrants. At this point in time, it is natural for us to become interested in startup Immigration. Let's learn some more about the system.

정리 편집실 자료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Information: Courtesy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기술창업이민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2018년 한국 이민대개방을 앞두고 다양한 이민정책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중, 2013. 10. 10. 시행된 기술창업이민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하고자 할 때 창업비자(D-8-4)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기술창업이민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며, 해외 고급인력 및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사업화 등을 종합 지원해 국내 기술창업 활성화와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체류자격입니다. 창업비자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은 첫째, 국내외에서 취득한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 및 해외에서 취득한 학사학위이상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제외), 둘째, 창업이민점수제에 따라 총 368점 중 필수항목 1개 이상이충족된 80점 이상의 점수 득점, 셋째, 대한민국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기존 법인 인수한 경우 제외. 단,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고 법인설립만 미완료일 경우 6개월 이내 법인설립 완료 조건으로 인정 가능)입니다. 창업이민점수제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특허 등 지식재 산권을 출원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Global Start—up Immigration Center)를 통해 교육, 멘토링, 사업화, 창업대전 등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해당과목을 이수(수료, 졸업)하거나 기타 점수제에 해당하는 학위소지와 한국어능력 또는 지본금 1억 이상 등의 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창업이민비자 발급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What shall I do to prepare for Startup Immigration?

Before large-scale immigration which is supposed to take place in 2018, various immigration policies are being considered. The

창업이민점수제 상세보기 Details of the Point system for startup immigration

필수항목 및 점수(총 233점): 1개 이상 필수 Points for required items (Sum: 233 points)- at least one item is essential.

구분 Category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Intellectual property ownership (registration)		지식재산권 출원 Intellectual property application		보유(등록)완료된 지식재산권의 공동발명자 Co-developer of intellectual property owned (registered)		연구(E3) 자격으로 3년 체류 Staying in Korea for three	5 , 7
	특허 또는 실용 Patent or Utility	디자인 Design	특허 또는 실용 Patent or Utility	디자인 Design	특허 또는 실용 Patent or Utility	디자인 Design	years on an E-3 (research) visa	
Points	80	50	20	10	5	3	15	각 25 each 25

선택항목 및 점수(총 135점) Points for elective items (Sum: 135 points)

				자본금 1억 이상	학력 Acade	토픽3급 이상		
	구분 Category	2,3	①, ④, ⑥	Over 100 million KRW of capital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소지 Doctoral degree of a university in	국내 대학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Bachelor's or master's degree of a university	또는 KIIP 이수 TOPIK grade 3 higher or completion of KIIP	
	배점 Points	각 25 each 25	각 15 each 15	15	10	5	10	

범례 Explanatory notes

- ① 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OASIS-1) 수료 / ② 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OASIS-2) 수료
- ③ 창업 소양교육(OASIS-4) 수료 / ④ 창업코칭 및 멘토링(OASIS-5) 수료
- ⑤ 발명·창업대전(OASIS-6) 1~3위 입상 / ⑥ 창업인큐베이터(OASIS-7) 졸업
- ⑦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 (OASIS-9)
- ① Completion of a basis course on intellectual property: OASIS-1
- ② Completion of an advanced course on intellectual property: OASIS-2
- ③ Completion of a start-up class: OASIS-4
- 4 Completion of the start-up coaching and mentoring: 0ASIS-5
- © Reception of first through third prize at invention or start-up competitions: OASIS-6
- 6 Graduation from the start-up incubator: OASIS-7
- ⑦ Possession of a foreigner's business start-up item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or selected as a project supported by the central or a local government

참고 Reference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출원, 공동발명 및 OASIS-6, OASIS-9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 보유 (등록), 출원, 발명 및 참여(선정)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전체 수 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함
- 동일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점수로 인정(예 : 디자인 출원이 3개라도 10점만 인정)
- If more than two people own (registered), applied or developed intellectual property together and participate in (are selected for) OASIS-6 and OASIS-9, only the points divided by the number of the people concerned are recognized.
- If one person owns (registered) more than one pieces of intellectual property which fall under the same category (for example, patent or utility), only 80 points are recognized.

** This rule applies equally to other cases (in case of intellectual property ownership/registration in relation to design: 50 points, in case of intellectual property application concerning patent or utility: 20 points and in case of intellectual property application related to design: 10 points).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OASIS) which started to be implemented on October 10, 2013 is one of them. It is a system that issues Start-up visas (D-8-4) to foreigners possessing excellent skills devised to encourage foreign talent and overseas Koreans to establish startups and foster industrial growth by offering training and mentoring programs and supporting commercialization.

Start-up visa requirements are as follows:

a.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earned from an educational institute abroad or an associate degree or higher received from an educational institute in Korea (except for a person subject to receipt of a degree) b. Scoring 80 or more out of 340

points (at least one or more required item(s) shall be included) c. Completing corporation and business registrations upon foundation of a corporation (except for the case in which he/she takes over an existing company) When he/she meets most of the requirements, to the exclusion of item C, he/she can apply for a visa on condition that he/she shall establish a corporation within six months.

Through Point system for startup immigration, the Korean government offers an opportunity to receive Start-up visas to a foreigner owning or applying intellectual property. By summing up all the scores for the following items, the total score comes out.

a. Completing/graduating relevant courses (according to OASIS,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run by the Global Start-up Immigration Center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b. Holding a relevant academic degree. c. Proficiency in Korean languaged. Having a capital of 100 million or more KRW.

영주자격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창업비자로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한 경우,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영주(F-5)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술창업 준비자에 대한 구직비자(D-10) 부여 기준의 자격이 변경 되었습니다. 기술창업(D-8-4)에 해당하는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국내·외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6개월 이내 취득예정자 포함), 창업이민 종합지원 시스템(OASIS)중 하나 이상 해당자(참여중인 경우 포함) 또는 창업이민 점수제의 '필수항목'중 1개 이상 해당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최대 1년이나, 지식재산권 출원자 또는 창업이민 점수제 50점 이상 해당자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또, 허가대상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 디자인만 해당됩니다. 점점 개방되어 가는 한국의 이민정책법에 본인도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알아보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 윤택한 삶을 가꾸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ow can I get a Permanent Resident Status?

If you have stayed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3 years on a Star-Up Visa and secured at least 300 million KRW from investors home and abroad or secured the equivalent capital, while hiring more than two Korean nationals as your employees for more than 6 months, you are entitled to Permanent Resident (F-5) Status.

Meanwhile, the criteria for Job-Seeker (D-10) visa issuance for those preparing Technology Start-Up h as changed and one has to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 As an individual preparing to start a business which comes under a category of Technology Start-up (D-8-4), one must hold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from home or abroad (including a prospective graduate within 6 months) and must meet the qualification

of either having participated (or is currently participating) in at least one program of the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OASIS) or meeting the requirement of at least one 'prerequisite item' under Start Up Immigration Point System.

The sojourn period can be extended for the maximum one year. However, it can be extended for the maximum two years for an applicant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those with more than 50 points under Start Up Immigration Point System. The applicab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bject to permission, are patent, utility, and design only.

It is recommended that you check if you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to explore your dream opportunity for a better abundant life at a time when the Republic of Korea is moving toward an open-door immigration policy.

그 밖에 OASIS 지원사업이 향후 지식재산권 출원에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이 79.4%에 달했고,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도 81.5%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OASIS 지원사업의 신청절차 및 참여과정이 '쉬웠다'는 반응도 75%에 이르러 사업참여가 용이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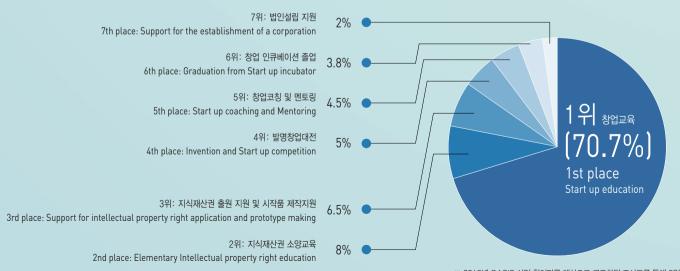
또한, 창업 또는 사업 중인 사업체의 2015년 매출액은 '1억 이상'이 33.3%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5년 평균 매출액은 88,847,203원으로 나타나 아직 창업 초기인 기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In addition, 79.4% of the respondents said the OASIS project is expected to be 'helpful' to an applic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future and 81.5% responded they are satisfied with the project on the whole. It is understood that the OASIS project was easy to participate in, when as many as 75% of the respondents said the application procedure and participating in the OASIS project were 'simple and easy.'

The survey also found that the highest share of 33,3% of start-up businesses and enterprises recorded sales of '100 million KRW or more' in 2015, and the average sales in 2015 recorded 88,847,203 KRW, indicating that the majority of businesses are on the initial stage of Start-ups.

OASIS 지원사업(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A Satisfaction Survey of Participants in OASIS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Project (Startup Immigration Talent Nurture Program) (Please display the data in a bar graph or make a graded list)



※ 2015년 OASIS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해 5일간 웹으로 조사함 A five-day web-based survey was conducted on participants in 2015 OASIS project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글로벌창업이민센터(Global Start-up Immigration Center) 현황

Current status of Global Start-up Immigration Center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비고
Institute	Contact Information	Location	Remarks
한국생산성본부 KOREA PRODUCTIVITY CENTER	02-724-1114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생산성빌딩 32 Saemunan-ro 5 ga-gil, Jongno-gu, Seoul 110-751, Korea	OASIS-4,5,6,7,8 운영 Manages OASIS 4,5,6,7,8
한국발명진흥회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02-3459-28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Center 131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OASIS-1,2,3,6 운영 Manages OASIS 1,2,3,6
서울글로벌센터 Seoul Global Center	02-2075-4180	서울시 종로구 종로38 서울글로벌센터 8층 8F Seoul Global Center, 38, Jong-ro, Jongno-gu, Seoul, Korea	OASIS-4,5,7 운영 Manages OASIS 4,5,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술벤처재단)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Techno-Venture Foundation)	02-958-6695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KIST H-2동 Building H-2, 5 Hwarang-ro 14-gil, Seongbuk-gu, Seoul, Korea	OASIS-9 운영 Manages OASIS 9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062-715-2593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창업진흥센터 123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Korea	OASIS-9 운영 Manages OASIS 9







철저한 출입국심사로 관광명소 입지 구축

유려한 경관과 절경으로 일년 내내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 더 이상의 부연설명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관광지의 꽃 제주는 하루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제주지역 출입국자는 2011년 이래로 연평균 35.8%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대비 6.9%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5년에는 외국인 출입국자의 비율이99%였다고 하니 명소로서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가늠이 됩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공항과 항만, 체류외국인 관리사무소가 함께 있는 전국 유일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공항만 출입국심사와 입출항 선박검색, 체류외국인 관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국적·난민업무, 사회통합, 출입국사범단속과 외국인보호업무 등 세부적인업무들을 수행하느라 모두가 각자의 부서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중국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직원들 대부분이 중국어가 가능하다고도 하니 역시일등 관광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답네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부서는 크게 관리과, 심사과, 조사과로 분류되며 심사과는 공항과 항만에 나뉘어 파견되어 있고 그 밖의 행정, 조사, 체류 관련 업무는 공항 인근 신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의 질적인 향상도 기대되는 곳입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사옥, 직원과 민원인 반응 좋아

2016년 2월, 총 3층 규모의 신축 건물로 이전한 제주출입국관리사 무소는 쾌적하고 넓은 근무환경을 자랑합니다. 각종 사증발급 등 다 양한 민원 업무처리는 이용 편리성을 제고한 1층 입구에 자리했고,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수유실과 이민통합지원센터 등 편의시설도 함 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배려한 공간도 돋보이는데요. 예 쁘고 아담한 북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며 동료간의 정도 쌓으며 휴식 을 취할 수 있게 했고, 업무에 지친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한 체력단 련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넓은 주차시설과 자연으로 둘 러싸인 환경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된다고 하네요.

체류관리와 조사, 단속 및 각종 사증발급 등 다양한 민원 업무처리까지 제주 내 출입국자들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곳은 요즘 더욱 바빠졌다고 합니다. 제주 내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거주, 비전문취업, 결혼, 선원취업, 특정활동 등 다양한 데 특히, 중국인의 비율이 전체 등록외국인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사증신청이 150% 증가하면서 사증 관련 민원 처리량이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항상 신속하고 친절한 응대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 덕분에 민원인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노오란 유채꽃 같은 미소를 머금은 서비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게는 제주 날씨만큼 따뜻한 온화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체류를 비롯한 공항만 출입

국 심사, 크루즈 등 모든 것을 관할해야 하는 사무소인만큼 외국인들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은 기본인데요. 이에 대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정병열 소장은 "외국인들이 우리 사무소를 찾아 친절하고 고맙다고 느낄 때 가장 흐뭇합니다. 무엇보다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강점이지요. 2017년 7월 1일부터제주 강정항(제주민군복합항)에 대규모 크루즈가 들어오게 되면서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제주를 찾게 될 텐데, 그 때를 위한 만반의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라며 소감과 내년 계획을 피력했습니다.약 860척 가량의 대형 크루즈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니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더욱 분주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 같네요.하지만 그들의 변치 않는 친절한 미소는 2017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민어 의심치 않습니다.

Mini Interview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우리가 도와줄게요!

체르쿠리 아부루파(인도), 아자트빅 크크즈 크얄(키르기스스탄)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원인들이 오시면 간단히 용무를 물어보고 담당부서로 안내해 주거나 서류 작성 안내 또는 외국어 통역 등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둘 다 결혼해 한국에 살면서 외국인들의 한국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희의 안내에 고맙다고 인사를 받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외국인과 한국인 누구나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저희의 봉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외국인의 유입도 많아진 만큼 그들을 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반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철저한 출입국심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제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열 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용객 맞춤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 언어서비스가 가능해요. 특히 공항만에는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다수 배치하여 외국인 이용객들의 언어 소통 불편을 줄여주고 있지요."

"처음 조사과에 배치받았을 때는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민원인 상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양한 불법체류외국인을 경험해 보니 이제는 업무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항상 저를 다독이며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조사과장님과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사과 성희원 반장



"중국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심사와 체류민원이 많아진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직원들간의 배려와 응원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말이지요."



한국구비문학회

이해와

한국구비문학회는 1993년에 창립되어 개최하고 있다. 구비문학의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정기 연구발표회, 학회지 간행, 자료집 및 연구서의 간행을 행하다

이 나 지금이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외교 사절이 오고 간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옛날 옛적 중국에 서 온 외교 사절이었던 한 사신과 우리나라의 평범한 백성 '떡보'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다.

옛날 옛날. 우리나라 조정에 중국에서 사신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나라에 큰 인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과연 그러한지 시험하러 온다는 거였다. 이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는 거라 고 여겼다. 우리나라에 위인이 있을 리 없는데 그런 소문이 들리니. 사신을 보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 했기 때문이다. 임금님은 중국 사신에게 내보여도 '과연 위인이 틀림없다'라고 탄복할 만한 사람을 찾아내어 중 국 사신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고 싶었다.

임금님은 전국을 수소문하여 큰 인물을 찾고자 했다. 중국의 사신을 잘 맞이한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 주겠노라는 방을 전국 방방곡곡에 붙이게 한 것이다. 하지만 방이 붙은 사정이 이미 소문이 난 터라. 좀처럼 인 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 가운데 떡보라는 이가 있었다. 떡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떡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었 다. 떡보는 그 좋아하는 떡을 실컷 먹는 것이 평소에 바라고 바라던 소원이었다.

'그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 준단 말이지?'

사신을 맞이하는 게 뭐가 어려우랴 싶었던 떡보는 자신이 사신을 맞이하러 가겠노라고 자원하였다.

이번 기회에 떡이나 실컷 먹어보자는 속셈이었다. 사신이 국경을 넘는다는 날이 다가오는데도 속수무책이었던

"하낟 미천하 뱃사공마저 이러하데, 학식이 있는 선비라면 더욱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 나라에 위인이 있다는 소문은 더 확인할 것도 없다."

조정에서는, 숨어살던 위인이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도우러 나타난 것이라 여겨 떡보를 국경으로 떠나보냈다. 국경의 압록강을 건너 온 사신은 압록강가에 배 한 척을 띄워놓고 앉아있는 떡보를 보았다. 국경을 넘어 와 처 음 만나는 사람인지라 사신은 떡보와 말을 나누고 싶어졌다. 서로 말이 다르니, 사신은 손짓으로 떡보에게 말을 검었다. 사실은 먼저 손가락으로 둥글게 원을 만들어 보였다. 그러자 떡보는 손가락으로 네모를 만들어 화답했 다. 사신은 깜짝 놀랐다. 놀란 기색을 감추고 사신은 다시 손가락 세 개를 펴 보였다. 그러자 떡보는 손가락 다 섯 개를 펴 보였다. 이에 사신은 자신의 수염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러자 떡보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사신은 감탄하였다.

"하늘은 둥글다고 먼저 말을 거니. 저 뱃사공은 땅은 네모지다고 응대하는구나. 삼강(三綱)을 아느냐고 물으 니, 뱃사공은 오륜(五倫)도 안다고 대답한다. 내가 수염을 가리키며 염제를 아느냐고 묻자. 뱃사공은 배(한자 로는 '복')를 가리키며 염제뿐만 아니라 복희도 안다고 하다. 하날 미천한 뱃사곳마저 이러한데, 학식이 있는 선비라면 더욱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 나라에 위인이 있다는 소문은 더 확인할 것도 없다."

탄복한 사신은 그 길로 중국으로 되돌아갔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크게 기뻐서 떡보를 불러 올려 큰 상을 내리는 한편 어찌된 영문인지를 물었다.

"그 분이 손을 둥글게 해서 '절편을 먹었는가?' 하시기에. 저는 손을 네모지게 해서 '나는 인절미를 먹었소' 하였 지요. 그 분이 또 손가락을 세 개 펴서 '세 개 먹었는가?' 하시기에, 저는 다섯 개를 펴서 '다섯 개를 먹었소' 하 였습니다. 그러자 그 분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맛있게 먹었는가?' 하시기에. 저는 배를 두드리며 '배부르게 먹 었지요' 하였습지요 "

이야기 들여다보기

〈떡보와 사신〉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천원지방(天圓地方)]'라는 우주론이나 사람이 지 켜야 할 삼강오륜 같은 고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신을, 먹는 타령이나 하는 평범한 떡보가 이겨먹은 셈이 되었으니까 요. 그런데 〈떡보와 사신〉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손짓, 즉 '보디랭귀지'라도 써서 서로 대화하려 한 사신과 떡보의 노력을 먼저 눈여겨봐야 합니다. 서로의 말을 모르는 두 사람은 손짓을 써서 상대방과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손짓으로 질문하고, 손짓으로 대답했지 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서로 외면하지 않고 소통의 방법을 찾은 두 사람의 태도는 참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사람이 각기 전혀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손짓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전혀 상대를 이해하지 못했지요. 각자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자기 뜻대로 해석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중국 사신은 우리나라의 사정도 오해한 채 귀국해 버리고 말았지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접촉이 많아진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떡보와 사신처럼 자기 마음대로 상대의 말 을 해석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서로 상대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없다 면 소통은 이해가 아니라 오해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떡보와 사신처럼 우스운 꼴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는 손짓으로라도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상대의 말을 오해 없이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만 하 지 않을까요?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줄래? Nice의 반대말, '**가**-칠하다'

생과 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곳, 바로 병원입니다. 급박한 상황 전개와 다양한 인간의 군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은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쓰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의학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력 좋은 괴짜의사와 그를 따르는 후배 의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회에서 진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추운 겨울 날, 몸보다 마음을 따스하고 촉촉하게 적셔줄 드라마를 보며 그 속에 담긴 한국어도 배워봅시다. 물건경주 서진 SBS

거대병원 VIP환자 수술에 실패해 돌담병원으로 좌천되어 내려온 강동주(유연석)는 그곳에서 만난 괴짜 의사 김사부(한석규)와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그러던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긴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몰려오고, 경험이 부족한 동주는 수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먼저 수술을 끝낸 김사부가 그를 도와주어 무사히 수술을 마치게 되지만 김사부는 동주의 실수를 지적하며 자존심을 무참히 밟아버립니다. 속이 상한 동주 옆에 선배 의사 윤서정(서현진)이 다가와 위로의 한마디를 건넵니다.

"것봐. 내<mark>가 까칠하다고</mark> 했지?"







'까칠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단어에서 느껴지는 발음과 글자의 획들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형용사인 '까칠하다'는 야위거나 메말라 살갗이나 털이 윤기가 없고 조금 거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친 바닷바람에 그의 얼굴이 까칠하게 말랐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이 단어 자체에서 풍기는 느낌과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비슷해서 재미있는 한국말입니다.

'까칠하다'는 '거칠다'라는 한국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칠다'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나무나 살결 때위가결이 곱지 않고 험할 때(손이 거칠다), 일을 하는 태도나 솜씨가찬찬하거나 야무지지 못할 때(운전이 매우 거칠다), 행동이나 성격이 사납고 공격적인 면이 있을 때(그는 성격이 거칠어 싸움하기일쑤였다), 숨소리나 기침 따위가 고르지 않고 셀 때(거친 숨을 내

쉬다) 등등 어떤 사물이나 행동이 부드럽지 않음을 나타내죠.

그렇다면 윤서정이 강동주에게 건넨 "것봐. 내가 까칠하다고 했지?"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이때의 '까칠하다'는 김사부의 의 성격이 사납고 거칠다는 뜻입니다. 윤서정 자신도 김사부의 그런 모습을 겪어왔다고 말하며 동주의 쓰린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지요

사실 '까칠하다'의 사전적 정의로만 봤을 때 성격을 표현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설명한 '거칠다'의 여러 의미 중 하나이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성격은 사납고 예민하지만 속 마음은 따뜻한 남자주인공들이 인기를 끌었고 그들을 '까도남', 즉 까칠한도시 남자라고 부르면서 '까칠하다'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 자주 쓰이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의 최신 유행어도 쉽게 알 수 있답니다!



"것봐. 내가 까칠하다고 했지?" 你看看,我不是说很粗略 (까칠하다) 吗?



听了'粗略(까칠하다)'这个单词时,会认为是什么意思呢?这个单词让人觉得发音和字体的笔画比较强。形容词'粗略(까칠하다)'具有着瘦弱和干枯,皮肤或头发没有润泽而有些粗糙。一般会使用为'因为粗大的海风,他的脸变得憔悴 (까칠하다)了'。这个单词本身散发的意思和单词具有的意义几乎相同,是个非常有趣的韩国语。'까칠하다(挑剔)'是从'거칠다(粗糙)'这个韩国语派生的单词。'거칠다(粗糙)'使用为各种用途。树或皮肤有些粗糙时(手粗糙)、做事的态度或收益不太仔细时(开车粗鲁)、行动或性格比较厉害和攻击性时(他的性格鲁莽,容易和别人打架)、呼吸声或咳嗽声不均匀时(喘着粗气)等等,表现某种事物或行动不柔和。那么,那么尹舒婷对江东株讲的"你看看,我不是说很粗略(까칠하다)吗?",这句话是什么意思呢?此时的'粗略(까칠하다)'意味着金师傅的性格比较厉害和粗略。尹舒婷自己和经历过金师傅的这种性格,是用这句话来慰劳东株受伤的心。其实'까칠하다'的词典定义方面没有表现性格的意义。反而是前面所说明的'粗糙(거칠다)'的几个意思之一。但几年前开始性格厉害和敏感,但内心却温和的男主人公比较受人气,将他们称之为'까도남',也就是粗略的城市男,此后'粗略(까칠하다)'经常使用为表现人的性格。通过韩国电视剧也能了解韩国的最新流行语。

30

새해 운세를 말해줘! 세계 각국의 다양한 행운점

올 초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터키에서 유학 온 파티마는 한국에서 다시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기쁘면서도 한 편으론 2년차로 접어드는 한국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이런 고민을 한국인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녀의 고민을 들은 친구는 함께 내년 운세를 알아보자고 하더니 파티마의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내년 운세를 알아보는데 개인정보 는 왜 물어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신년운세를 점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일텐데요, 여러 나라의 신년운세 점을 알아보며 다가오는 2017년을 예상해보는 건 어떠세요?

Fatima from Turkey to learn Korean language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has spent a busy year in Korea. On top of happiness to have the new year, she was also worried about her life in Korea, and she talked about this to her Korean friend. The friend wanted to see the fortune of the new year, and asked Fatima for her date of birth. She could not understand why personal information would be needed to see the fortune of the next year. It might be because each country has different methods to see the fortune of the new year. Why don't you forecast the year of 2017 by understanding the fortune cultures of many countries?

정리 **김경주**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과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길거리의 작은 천막에 사람들 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들은 한 해의 운을 알아보기 위 해 온 사람들입니다. 한국에는 예부터 운세를 점치는 방법이 전해오고 있는데 요 바로 사주명리학과 토정비결입니다. 먼저 사주명리학은 사람이 태어난 연 (年) · 월(月) · 일(日) · 시(時)에 근거해 사람의 길흉화복을 알아보는 학문입 니다. 원래 중국에서 이어져 내려오면서 한국에도 전해진 것인데 시간이 흐 르면서 한국사람에 맞게 변모해왔죠.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사주명리학에 적 용해보면 내년의 운세는 물론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인생의 전체적인 유곽을 알 수 있다고 하니 신기하지 않나요? 두 번째 방법은 토정비결입니다. 토정비결 은 조선시대 학자 이지함이 지은 책이름이기도 한데요. 1년 12달의 운을 판단 하는 방법을 기록해놓았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토정비결을 이용해 정월 초승이 면 으레 그 해의 운을 점치는 것이 연례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일반인에겐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지만 생년월일만 알면 니 의 운세를 알 수 있답니다.

일본 역시 점치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오미 쿠지입니다. 오미쿠지는 길흉화복을 점치기 위해 뽑는 운세 쪽지인데요. 일본 절 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답니다. 원래 오미쿠지는 고대시대에 나라의 재정에 관한 사 항이나 후계자를 선택할 때 신의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 나무막대를 뽑아 운세를 점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오미쿠지로 운세를 알아볼 수 있 는데,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

- 1. 먼저 절에 100엔 정도의 요금을 지불합니다.
- 2. 뽑기함을 잘 흔든 뒤 나무막대 1개를 뽑습니다
- 3. 뽑은 막대에 적힌 번호대로 운세쪽지를 받아서 운세를 확인합니다.
- 4. 운세가 나쁘게 나왔다면 절에 마련된 새끼줄에 운세쪽지를 매달아 액을 막으면 됩니다.

새해 운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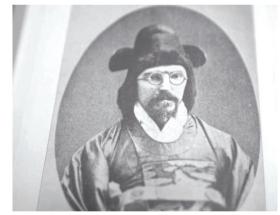
서양에도 새해 운세를 예측하는 점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블라이기센이라 는 점이 로마시대부터 내려오고 있죠. 블라이기센은 '납을(블라이) 붓는다(기센)'는 뜻인데 점을 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숟가락이나 조그만 국자 위에 준비한 납덩이를 올려 놓고 촛 불에 납덩이를 가열합니다. 납이 액체 상태로 녹으면 준비했던 찬물을 납덩이에 재빨리 붓고 굳어진 납덩이의 모양을 촛불에 비춰 나타난 그림자 형상에 따라 새해의 운세를 예 상해보는 것이지요. 동물과 사람, 사물까지 수많은 모양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몇 가 지 의미를 살펴보자면 납덩이 모양이 돼지 같다면 성공을 상징하고, 꽃 모양이 나오 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 핀란드에도 독일과 비슷한 말편자점이 있습니다. 납덩이 대신 주석으로 만들어진 말편자를 녹여 식힌 후 모양이 변한 주

> > 석 덩어리를 벽에 비춰 보이는 그림자 모양으로 신년 운수를 점치는 방법이죠. 배 모양이면 여행을 많이 할 운, 열쇠 모양이면 좋은 직장을 얻을 운, 심장 모양은 사랑, 바늘 모양은 불운을 상징하는 등 여 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새해 운세가 궁금한 건 똑같죠?







출처 : KBS

'뮌헨 첫 한국인' 이미륵 박사를 아십니까



조선 최초의 서양인 정치고문, 독일인 묄렌도르프

한국과 독일은 조선 16대 임금 인조의 아들이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머물 때인 1644년, 독일인 신부 아담 마샬(Adam Schall)과 첫 만남을 가졌지만 지속적 인 교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두 세기가 지난 후 강대국에 대응해야 했던 조선은 청나라의 추천을 받아 독일인 '묄렌도르프'를 최초의 서양인 정치고문으 로 임명했다. 묄렌도르프는 청에서 익힌 한문으로 능숙하게 조선에 적응했고. 세관업무와 외교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발전을 위해 통신시설과 서양 식 학교 설립을 주도했다. 묄렌도르프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한국 이란 나라에 독일을 분명히 각인시킨 인물임은 분명하다.

인연의 끈을 놓지 않은 한국인과 독일인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한국은 그 동안 맺었던 강대국들과의 수교가 단절되었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독일인과 한국인의 교류는 계속되었다. 독일 최초의 한국학자로 평가되는 안드레 에카르트(Andre Eckardt)를 비롯한 독일 베네 딕트 소속 선교사들이 내한하여 신학교를 설립하고 포교활동을 벌였고. 한국 인들은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소설가 이미륵이 대표적인 독일 유학생으로 꼽 히는데 그는 뮌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독일어로 쓴 산문을 발표했 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소설은 〈압록강은 흐른다〉로 1946년에 독일에서 발간 된 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민간차원의 교류였지만 이 시기의 한국과 독일은 서로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분단의 아픔을 이해하는 유일한 두 나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동독과 서독으로,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남 북으로 나뉘었다. 국교가 재개된 후 서독과 남한은 분단이라는 공통된 아픔으 로 더욱 친밀해졌다. 서독은 한국의 경제부흥을 도와주기 위해 다양한 원조를 하고. 한국은 서독의 노동력 지원요청에 따라 한국인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해 서로 협조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그 후 1990년 독일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 뤄냈고 같은 상황에 있던 한국에 좋은 선례를 남겨주었다. 독일은 지금까지 한 반도의 안정을 위해 한국 즉 남한의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다채로운 문화 교류로 꽃피운 한-독 관계

한국과 독일은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우방국이지만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은 문화 교류다. 독일은 '2005년 한국의 해'로 지정하여 2005년 한 해 동안 독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을 종합적으로 소개했고. 이를 통해 한국전쟁, 분단. 북핵 문제 등으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독일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리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임권택, 박찬욱, 김기덕,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좋은 평가를 받아 독일 내에서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지는 추세다. 2013년에는 한-독 수교 130주년을 맞아 각 국에 서 기념행사를 개최해 두 나라의 우정을 돈독히 다졌다. 분단이라는 공감대로 힘든 시절을 함께 보낸 두 나라의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길 바라본다.







과학적인 한국 고유의 문화 '온돌'

한국인의주거문화를 이야기할 때 '온돌, 구들'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따뜻하게 데운 돌'에서 유래된 온돌(溫突•溫突) 혹은 '구운 돌' 즉, 구들이라고도 하며 추운 북쪽에서 발달해 남쪽으로 전해진 북방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 온돌에서 생활하는 한국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 중에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일하게 온돌을 개발해 조상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온돌은 아주 오랜 옛날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용하던 한국 고유의 난 방방식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펴 취사를 겸해 불과 연기를 이용하여 열에너지를 가둔 방바닥이 서서히 식으면서 방 안을 따뜻하게 덥혀주는 원리다. 이는 복사, 전도, 대류의 열전달 3요소를 모두 갖춘 매우과학적이고 독창성이 돋보이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온돌이 난방 효율성은 물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인체에도 좋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다른 나라에서도 온돌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연구하고 있다. 또, 온돌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물, 바람, 지열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며 재생 가능한 흙을 주재료로 하는 생태건강건축으로 미래 건축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여 한민족 전통문화유산 중 손꼽힐 만하다.

'Ondol', the Scientific and Unique Culture of Korea

When talking about Korean people's housing culture, 'Ondol, Hypocaust' cannot be excluded. Ondol originated from 'warmly-heated stone' is also called hypocaust with the northern characteristics such as developing in the cold north and then spreading to the south. Korea is the only country developing Ondol as a method to heat the house among numerous ethnic groups, which has been inherited from ancestors.

As a traditional heating method of Korea used from before the Three Kingdoms Period, Ondol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making a fire in the fireplace for cooking and heating up the room as the floor storing the thermal energy gradually cools down. This is a scientific and creative method equipped with all the three elements of heat transfer such as radiation, conduction, and convection.

Recently, on top of heating efficiency, the great effects of



Ondol on human body because of smooth blood circulation have been revealed, so that the excellence of Ondol is recognized/studied by other countries. Also, Ondol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of the future architecture owing to the ecological & healthy architecture preserving natural environment, applying natural energy like water, wind, and geothermal heat, and mainly using renewable soil, so that it is great enough to be mentioned among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s of Korea.

전통 난방에서 비롯된 생활문화가 '한국적인 것'을 만들다

한국의 온돌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배부르고 등 따뜻 하다'가 있다. 만족에 대한 표현이라 짐작할 수 있지만 특히 '등 따뜻하다'는 온돌이 존재하는 한국 문화이기에 가능한 표현이다. 아궁이에 불을 때면 방의 아랫부분이 집중적으로 따뜻했기 때문에 아랫목은 소위 '좋은 자리'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했고,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옹기종기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단란한 집안을 묘사하기도 한다.

또한 '구들장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다'라는 표현은 심각한 걱정이 있음을 나타내고, '누워서 떡 먹기'라는 표현도 온돌이 아니면 누워서무엇을 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온돌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온돌 문화는 단순한 난방방식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전반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서양식 라이프스타일에 익숙해진 요즘이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온돌에 의한 좌식생활 문화가 지배적이었다. 아랫목에서 태어나 자라고.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식사



하거나 잠잘 때 온돌 방바닥과 밀접한 생활을 해왔다. 이처럼 방바닥과 밀착해 생활하다 보니 그 생활에 맞게 넉넉한 의복을 입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복'이다.

한민족의 옛 조상들은 훈훈한 온돌에 익숙해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국수를 먹기도 했고 더운 여름에는 뜨끈한 해장국을 즐기기도 했다. 큰 명절이나 잔치가 있을 때에도 온돌방에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춤 추고 놀기도 하고, 신을 벗고 문을 여닫으며 방 안에 들어 가야 하는 주거 생활 특성상 청결하고 예의 바른 조용한 민족이라 불리기도 했다

온돌의 따뜻한 아랫목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한기를 느끼면 그 '아랫목'이 간절해지는 독특한 정서가 만들어져 오늘날 찜질방이나 온 돌매트 등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온돌은 단순히 과거를 찾는 향수가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열망이기도 하며 '한국'다운 문화를 형성하는데 주축이되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The Living Culture Originated from Traditional Heating Makes 'Something Korean'.

As a representative expression showing the Ondol culture of Korea, there is an expression like 'full with warm back'. As an expression of satisfaction, especially, the expression like 'warm back' can be heard only in Korean culture with Ondol. When making a fire in the fireplace, the lower part of the room was especially warm, so that the lower part meant a 'great spot'.

The look of talking in a huddle under a blanket on the lower part describes a happy family.

Also, the expression like 'sigh enough to break flat stones' means a serious worry, and the expression like 'eating rice cake while lying down' is related to the Ondol culture as it is hard to eat something lying down without Ondol. Like this, the Ondol culture had huge influence on the overall life of Korean people, on top of simple heating method. Even though many people are accustomed to the Western lifestyle, basically, the sedentary life culture caused by Ondol was dominant in Korea. Born, growing, working, studying, eating, or sleeping on the lower part, people were very close to the Ondol floor. Living close to the floor, people started wearing big and comfortable costume which is 'Hanbok'.

Old ancestors of Korea were familiar with warm Ondol, so that they used to eat cold noodles in cold winter and also boiling hangover soup in hot summer. During the big holiday or party, they shared food and joyfully danced in a huddle on the Ondol floor.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 of housing life such as entering the room after taking off shoes, they were called clean, polite, and quiet people.

When Korean people familiar with the warm lower part culture of Ondol feel cold, they miss the 'lower part', so that today Jjimjilbang(Korean dry sauna) or Ondol mat has been settled

down as essential culture. Rather than a simple nostalgia for the past, Ondol is everyone's desire for healthy and happy residential environment as the primary axis to form 'Korean'-style culture.

보건의학을 포함하는 문화로 세계를 사로잡다

현대 사회에서 온돌문화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침대와 소파, 식탁 등에서 주로 생활하는 입식문화가 생활 전반을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 히 온돌은 지속되고 있다. 침대에도 돌침대, 흙침대 등의 형태로 새로운 온돌 문화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니 말이다.

바닥을 데운다는 점에서 서양의 난방 시설과 차별성을 두는 온돌은 2008년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되기도 했고 중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에까지 한국식 난방 시스템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의 중국 한족들 조차 온돌방의 매력에 빠져 있고, 베이징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도 바닥난방 시공이 붐을 이루고 있다.독일 역시 일찍부터 바닥난방에 관심을 두어 보건 위생과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바닥난방을 지원하고 있고 바닥난방을 사용하지 않던 일본도 청정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가지며 온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온돌 문화가 세계화되고 있다는 입중이며, 온돌의 종주국인 한국은 찬란한 구들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몰두해야 할 것이다.

난방 방법이기 이전에 건강을 위한 도구이기도 했던 온돌. 데워진 공기가 대류현상으로 상승해 방 안 온도를 높이며 고르게 조절하고 습도 조절능력과 생체 세포에 활력을 주는 원적외선 방사기능의 탁월함이 건강한 환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준다고 하니, 한국 선조들의 지혜로움에 감탄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빛나는 민족 문화 유산인 온들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더욱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The Culture Including Health & Medicine Captivates the World

In modern society, the Ondol culture is facing changes. Even though the stand-up culture mainly living in bed, sofa, and table occupies the overall life, Ondol is still continued. Even beds suggest a new-type of Ondol culture like stone-bed or soil-bed.



Ondol differentiated from the western heating facility in the aspect of heating the floor was selected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2008, and Korean-style heating system is gradually spreading to many countries like China, the US, and Europe. Especially, Han ethnic in the northeastern area of China is fascinated by the charm of Ondol while the construction of floor heating is booming in many cities including Beijing. Based on the early interest in floor heating. Germany is actively supporting the floor heating in the aspect of health hygiene, energy saving,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Japan which did not use the floor heating is coming to the front in the Ondol area based on the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clean energy. As it is the proof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Ondol culture, Korea which is the suzerain of Ondol should more concentrate on the succession/ development of the splendid floor heating culture of Korea.

On top of a heating method, Ondol was also a tool for health. When the heated air rises up through the convective phenomenon, the room temperature and humidity are evenly controlled. The excellence of far-infrared radiation giving vitality to body cells naturally makes healthy environment, which shows Korean ancestors' wisdom. It is expected to see that Ondol is registered as a world heritage after its excellence is recognized in the world.

출국심사가 더욱 빨라졌어요!

출국심사인 날인 생략으로 출입국 절차를 간소하게!

Streamlined immigration procedure with no more exit stamps.

의러스트 **강주연** 자료제공 **축인군 · 외군인정책본부**

각종 출입국심사 서비스와 외국인정책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공존〉편집실(theseven@theseven.co.kr)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해외를 나갈 때마다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따 분해요. 가뜩이나 사람들로 붐비는데 출입국절차도 은근히 번거로워 비행기 타기 전부터 피곤이 몰려 올 때도 있어요. 출입국심 사가 조금 더 간소화되면 좋겠는데 달라지는 정책이라도 있나요?

법무부는 출입국자 7,000만 명 시대를 맞아 2016년 1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승객(내 · 외국인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여권에 찍던 출국심사인을 생략하였습니다. 이는 승객 1인당 3초 정도의 심사시간이 단축되어 심사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출국심사장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시켜주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승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 입국신고서와 외국인 출국신고서 제출 생략(05년 11월), 국민출국신 고서와 등록외국인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06년 8월), 국민 입국심사 인(11년 2월) 날인을 생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이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자동심사대 이용을 위해 다시 지문 및 얼굴을 등록 해야 하는 절치를 폐지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변경된 경우 재등록 필수)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출입국자 73,243천 명 중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자는 약 21.5%로 5명 중 1명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 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입출국이 증가함에 따라 간소화되고 스마트한 편리함을 제공하는 출국심사절차 시스템은 향상되고 있으며 이를 이 용하는 승객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Everytime I travel abroad, it's really boring to wait long hours at the airport. And I feel exhausted just having to go through the cumbersome immigration clearance when the airport is already packed with people. I wish the immigration formalities could be a bit simpler, are there any new policies regarding thi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dispensed with the stamping process for departure immigration clearance since November 1st, 2016, for all passengers (both Koreans and foreign nationals) departing the Republic of Korea. This measure contributes in decongesting the long waiting lines at the immigration checkpoints by reducing the inspection time of 3 seconds per passenger.

To provide more travel convenience, the Ministry has simplified the immigration formalities. From November 2005, Korean nationals no longer have to submit arrival cards and foreign travelers were exempted from submitting departure cards, and since August 2006, departure cards for Korean nationals and arrival cards for registered foreigners were no longer required. In addition, the stamping process for entry was dispensed with to all Korean nationals since February 2011.

Furthermore, those who have already enrolled for the use of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ervice can continue using the service without re-registering their fingerprints and facial image in cases where they have renewed their passports. (Please note that if there are any changes in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ame or registration number, re-registration is required.)

Approximately 21.5% of the 73,243 thousand travelers from January to November 2016 used the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ervice, which is also equivalent to 1 out of 5 people. As more and more people travel overseas, the immigration system improves to provide 'smarter convenience', and consequently, travelers are more satisfied.

제6회 한마음걷기축제

마음 모아 함께 즐겼던 세계인의 걷기축제 현장으로 GO!

올해도 어김없이 제6회 한마음걷기축제가 개최되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하늘은 어느 때보다 푸르른 얼굴로 축제의 날을 열어주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들이 세계인의 화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을길을 걸었던 그 날은 어느 때보다 활기찼고 따스했다. 글 김경주 사진 이영균

이제는 세계인이 화합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한 한마음걷기축제(이 하 걷기축제)가 10월 30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 서 열렸다. 법무부가 후원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사단법인 건강사회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걷기축제는 올해로 벌써 6회째. 평년 기온에 비해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걱정이 앞섰지만 참 가자들은 행사장으로 삼삼오오 들어오기 시작했고. 스태프들은 참 가자들이 잠시나마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한 커피를 준비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한마 음걷기축제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

자. 유학생 등 모든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호흡하고 어울릴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도 3천여명이 참가 해 함께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진정한 세계인으로 거듭나는 의미 있 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 둘, 하나 둘, 준비운동 시작!

축제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비트써클'이 난타공연을 펼쳤다. 경쾌한 북소리와 눈을 사로잡는 아크로바틱 동작으로 참가자들의 시선은 저 절로 무대로 향했다. 신나는 오프닝 공연이 끝난 뒤에는 사회자 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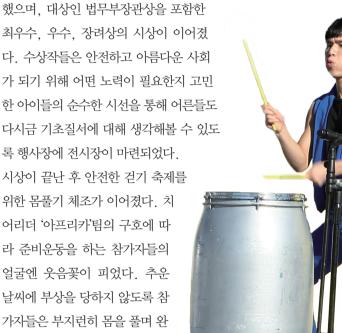
욱 아나운서의 개회선언으로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는 법 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김우현 본부장, 前주영국대사관 추규호 대사, 前서울동부 석동현 지검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허윤희 부회장,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수구 이사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김종민 소 장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건강사회본부 이수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의 옛말 중에 태어 난 곳이 고향이 아니라 지금 정 붙여 살고 있는 이곳이 고향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 모인 우리들도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하루 빨리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 와 내외국민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며 이번 축제의 의미 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김우현 본부장은 "이번 걷기 축제를 통해 체력도 기르고. 함께 걸으며 서로를 이해하 고 배려하며 나누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축복 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서 제 4회 이민자 사회통합 기초질서 지키 기 공모전 전시회 시상식이 열렸다. 사단법인 건강사회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법무부와 행정자치부가 후원한 이 공모전에서는 포스터와

했으며, 대상인 법무부장관상을 포함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의 시상이 이어졌 다. 수상작들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사회 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 한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어른들도 다시금 기초질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

시. 글짓기 등 세 개 부분을 나누어 수상을 진행

시상이 끝난 후 안전한 걷기 축제를 위한 몸풀기 체조가 이어졌다. 치 어리더 '아프리카'팀의 구호에 따 라 준비운동을 하는 참가자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다. 추운 날씨에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참 가자들은 부지런히 몸을 풀며 완 주 의지를 다졌다.





청명한 하늘 아래서 걷는 3.8km

출발선으로 모인 참가자들 출발 신호를 기다렸고, 힘찬 폭죽소리와 함께 3천여명의 참가자들이 일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걷기축제는 경쟁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참가자 중 어느 누구도 걸음을 재촉하기 보다는 옆의 가족, 친구와 함께 가을 정취를 느끼며 걷고 있었다. 대부분 바쁜 일상에 못다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내기 시작했고, 곳곳엔 참가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하늘공원 둘레 3.8km의 걷기코스는 그야말로 세계인의어울림을 보여주었다.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내외국인들은 함께 사

진을 찍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며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갔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재잘거리는 말소리는 세계인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합창이었다.

한국생활 어려움은 고충상담소에서 해결!

축제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참여율이 특히 높았던 곳은 정부합동고충 상담 부스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 족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참가하여 체류, 국적, 사증 등 출입국 관 련 법령, 자녀교육, 취업, 생활법률 등 재한외국인이 국내생활 적응

Mini Interview



"내년엔 가족과 함께 올래요!"

참가자_웰카 (몽골)

터키에서 한국인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고, 한국에 온지는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지금은 일하면서 숙명여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걷기축제에 참여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라 더욱 뜻 깊은 것 같아요.

"한국어가 서툴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 거주한지 벌써 17년 째에요. 저는 결혼이민자네트워크 협동조합 소속으로 한국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고충상담 부스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통역을 해주려고 나왔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자원봉사자_메리 (필리핀)





에 필요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궁금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설명해주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었다. 심각한 표정으로 부스를 찾았던 외국인이라도 상담을 끝내고 나면 한결 편안한 미소를 띠었다. 고충상담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건강사회운동본부가 주최하고 GKL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는 외국인 건강캠프도 많은 외국인들로 붐비고 있었다. 내과, 안과, 치과,이비인후과를 비롯해한방과와 약국까지 마련된 이동진료를 통해외국인들은 자신의 건강을 다시한번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다시 한번 되새기는 화합의 기쁨

약 1시간이 지나자 참가자들은 도착지점인 평화의 광장으로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번 걷기 코스에는 더욱 즐거운 걷기축제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미션이 주어졌다. 바로 '스탬프 랠리' 프로그램. 걷기코스 중간중간에 미션포스트를 설치해 두었고 QR코트로 미션을 받는다. 참가자는 미션을 해석하고 확인부스에서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데 3가지 이상 미션을 수행한 참가자에게는 완보증 교부처에서 확

인 후 별도의 기념품을 증정했다.

미션을 완료하고 기념품까지 받은 참가자들은 광장 곳곳에 마련된 문화 공연을 즐겼다. '관자놀이코프라펀치'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락밴드의 신나는 리듬에 몸을 맡겼고, 보면 볼수록 신기한 마술 공연도 펼쳐졌다. 전통의상체험 부스에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일본의 전통의상이 준비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맘에 드는 전통의상을 입어보며 기념사진을 찍기 바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비롯한 세계의 전통놀이 부스는 아이들에게 인기만점이었다. 일본 전통 공놀이인 켄다마를 즐겼고, 베트남의 전통 모자를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한국에는 없는 여러 나라의 놀이를 해보는 아이들을 보며 장차 세계인으로 커나갈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다. 걷기 축제를 통해 국적, 인종, 종교를 넘어 다채롭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세계인이 만들어가는 화합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마음이 한데 모아졌던이 귀중한 순간을 가슴 속에 기억하며 내외국인들 모두 행복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한마음걷기축제는 계속될 것이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올해의 발자취

2016년 한 해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의 핵심 정책이나 행사 중 일곱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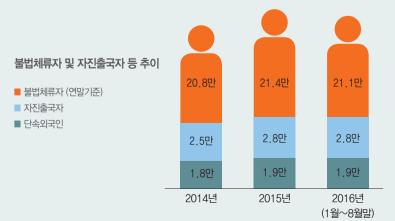
>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시행 후 효율적인 민원업무에 만족도 상승

법무부가 2016년 2월 1일부터 3월 21일 기간 동안 수도권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한 결과, 시행 전 4%에 못 미치던 방문예약율이 시행 후 44%까지 크게 증가하여 민원처리 대기시간도 약 3시간에서 10분 정도로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예약처리율이 72.88%에 달해 가장 높았고, 서울남부(54.02%), 수원(50.90%), 세종로(41.68%), 인천(32.82%), 서울(32.01%) 등의 순이었다. 방문예약자 전담창구 운영과 사무소 별 일일 방문예약자 할당,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한 민원 희망 날짜와 시간 자동 분산 등이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극대화 시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민원처리 대기시간

02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3개월 연장 실시

2016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시행된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 제도라 함)가 3개월 연장 시행 되었다. 연장 전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 금년 12월 말 까지 자진출국 제도를 연장했다.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기존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했던 불이익을 전면 면제하는 제도로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공・항만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고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제8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취임

방문예약율

44%

증가

5월 23일 김우현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제 8대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김우현 본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수원지검, 광주지점, 법무부 법무심의검사, 서울지검, 광주지검,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김우현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철저하고 효율적인 국경관리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고 모든 구성원이 조화롭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4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수녀, 대한민국 명예 국민 되다

지난 40여 년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의 간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천사 수녀' 2명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명예 국민이 되었다. 오스트리아 국적의 스퇴거 마리안느(82세)와 피사렛 마가렛(81세) 수녀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병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1962년, 1966년 각각 입국해 40여 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 정신 하나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해 왔다. 금년 6월 8일 법무부로부터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을 수여 받았으며, 이번 명예국민증 수여는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의 주역 히딩크 감독 이후 2번째이다.



第2006時年中間常常の日本

05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어울림 마당」행사 개최

법무부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난민어울림 마당」 행사를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신임 대표인 나비드 사이드 후세인 대표 등 내 · 외빈 및 입주난민 13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유엔(UN)에서 정한 기념일로 올해 16번째를 맞이했다. 김우현 출입국 · 외국인정책 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도적체류자가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인도적체류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신임 대표 역시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과 관련하여 여러 정책적 성과를 이룬 것에 감사를 표했다.

2016년도 하반기 전국 조사과장회의

2016년도 하반기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 등을 논의하는 '2016년도 하반기 전국 조사과장회의'가 7월 25일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불법체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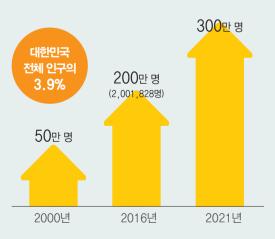


감축 목표, 출입국 관련 브로커 단속 강화 등이 논의 되었으며, 2016년도 상반기 단속 · 유흥업소 집중단속 우수기관 시상이 이루어졌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은 업무수행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외국인 인권보호에 소홀함 없이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를 전했다.

07

국내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 5년 내 300만 명 전망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016년 6월 30일자로 200만 명을 돌파, 2,001,828명이 되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향후 5년 내 체류외국인 수는 3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약 5.8%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외국인을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과학 분야 등 우수인재를 유치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외국인 유치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 유입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방지하고 국민과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I.S. **CALENDAR**

2016년도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12월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2016년도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의 추진성과와 2017년도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들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해외 주재관들의 해외이민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체류자격 개편, 무사증입국허가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공항만 출입국 심사 및 보안 강화, 외국인 체류질서의 엄정한 확립으로 출입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각 기관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중국 출입경관리국 교환연수단 연수 실시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중국 출입경관리국 직원 6명이 한국에 방문하였다. 한-중국 교환연수는 2012년부터 인천-북경공항 간, 2014년부터 부산·인천-상하이 항만 간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일주일간의 현장학습으로 구성된다.

2016년 연수단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인천사무소, 한국조폐공사를 방문하였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환연수를 통해 양국 간 출입국 관련 협력체계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 개청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 개청식이 지난 10월 20일 개최되었다. 이날 개청식에서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김해출장소가체류, 사증, 증명발급 등 종합적인 이민행정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씀을 전하였다. 더불어, 작은 규모로 시작할지라도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게도 사랑받는 기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였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현장투어 실시



지난 10월 2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 자 12명을 대상으로 출입국현장투어를 실시하였다. 조사과, 국적실, 체류민원실, 사범과, 이민 통합센터 등 현장견학을 통해 출입국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투어 실시 후 설문조사 결과 신청자 모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몽골 영사국장 Yadmaa Ariunbold 방문



10월 24일 몽골영사 국장일행은 양국간 출입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몽골인의 입국심사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방문하였다. Yadmaa Ariunbold 몽골영사국장을 비롯하여 총 4명의 방문자들은 출입국정책단장을 포함한 6명의 본부 관계자들과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리에서 몽골 측 의제인 몽골인 입국심사와 송환대기실(보호실) 처우, 우리 측 의제인 몽골인 불법체류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얀마 재정착난민 7가족(34명) 한국 입국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미얀마 재정착난민 7가족 34명을 받아들였다. 지난 12월 2일 재정 착난민 34명은 엄격한 심사 및 선발절차를 거쳐 주태국한국대사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초적응교육을 마치고 입국하였다. 입국 후 이들은 난민인정자 지위로 출입국·외국 인지원센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한국어·

한국사회 적응ㆍ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게되며, 이후 지역사회로 정착하게 된다. 김우현 법무부 출입 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입국행사 인사말에서 법무부는 재정착난민 수용을 통해 난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재정착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나비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는 재정착난민의 두 번째 수용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난민인권 보호와 국내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Vasyl Marmazov 방문



12월 5일 주한 우크라이나대사 Vasyl Mar-mazov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출입국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한-우크라이나 외교관계 수립 25 주년을 맞아 출입국 분야에서도 앞으로도 지속적 인 만남을 통해 이민정보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공존하세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가 발행하는 정보 매거진 〈공존〉을 앱북(App Book)으로 즐겨보세요~





〈공존〉 앱북 IOS용 버전은 앱스토어에서, Android용 버전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Android용

〈공존〉SNS Special Event

공존 독자 여러분!

2016년 한 해도 공존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보다 나은 콘텐츠 제공을 위해 간단한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른편 설문에 대한 답을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따뜻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2017년에도 공존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답글 예시) 1. 만족 2. 예 3. 샘 해밍턴



www.facebook.com/immigration.kr

참여하세요

2016 〈공존〉 **만족도 조사**

하나, 출입국 정책과 재한외국인들의 삶과 다양한 정보를 담은 2016년도 〈공존〉의 내용은 어떠했는지 평가해 주세요.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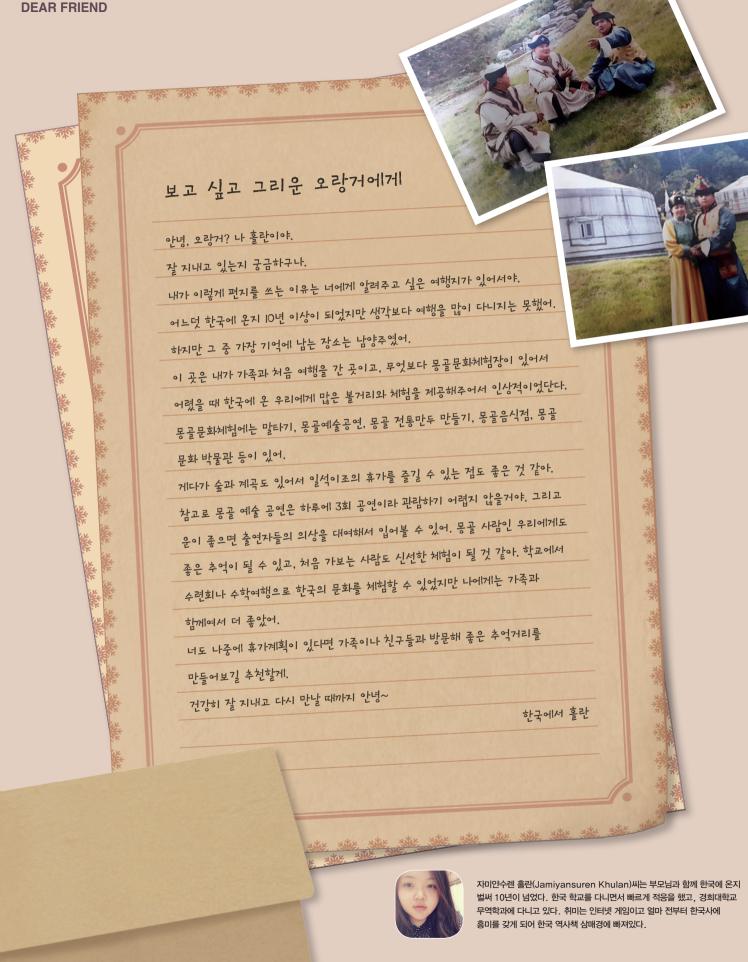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잘 모르겠다

〈공존〉의 일부 코너는 다국어(영어)로 제공되고 있는데 만족하셨나요?



2017년 〈공존〉에 초대했으면 하는 재한외국인을 추천해주세요!









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가능 대상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11세 이상 국민
- 여권 유효기간 30일 이상일 때 사용 가능



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전 절차

- 마카오 국제공항 또는 페리터미널에 설치된 등록센터 방문
- 등록센터에서 지문과 얼굴정보 등록 후 이용
- ※ 단, 마카오 입국규제가 있는 경우 등록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여권 재발급, 성명 변경 등 여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재등록 필요

현재 우리 국민은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도 이용할 수 있어 홍콩과 마카오를 함께 방문하는 경우 한국 - 홍콩 - 마카오 3국을 대면심사 없이 왕래할 수 있게 됩니다.

구 분	위 치	운영 시간
이민국본부	Immigration Department Office Building Pac On	월~금 09:00~17:00 (토 · 일 · 공휴일 휴무)
마카오 국제 공항	입국심사대 도착 전(도착비자 발급실)	매일 08:00~00:00
홍콩 · 마카오 페리터미널	입국심사대 도착 전	매일 08:00~00:00
타이파 페리터미널	입국심사대 도착 전	매일 08:00~00:00
중국 국경 터미널	입국심사대 뒤편	매일 08:00~23:00

[※] 등록센터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마카오 이민국 홈페이지(www.fsm.gov.mo/psp/eng/psp_top5_22_1.html) 를 통해 최신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